

# 광산업·조선·차 부품 등 광주·전남 1,800여개社 3년간 세무조사 안한다

## 광주 방문 한상을 국세청장 밝혀

광산업과 조선산업·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광주·전남지역 1천800개의 전라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한상을 국세청장은 23일 광주지방 국세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여건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광산업·조선산업·자동차부품 제조업·신재생에너지산업·전라산산업 등 전라산업체의 경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1천806개 관련업체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년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온 장기사업자 1만4천122개 업체와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도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와 관련기업, 전통·향토업소, 전통주 제조업소 등에 대해 납기연장, 징

수유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오고 있다.

또 200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한 청장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제품이 출고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기에 환급금을 지원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직접파해기업에도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한 중소

기업에는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를 1년간 유예하고, 서민주택이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매유예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이어 광주, 전남·북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 신양파크 호텔에서 열린 상공인 오찬 간담회에서도 한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보여줬다.

이날 상공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평가C유, LNG 등 산업용 연료 개별소비세 면제 ▲미분양 아파트 관련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지역기업

세무조사 감축비용 확대 ▲에너지 절약기업 조세특례기간 연장 ▲건축·구조물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등을 한 청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 등을 판단, 관련부처와 협의해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이 세금부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 대비 5% 축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상률(오른쪽에서 두번째) 국세청장이 23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 전남·북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송기태 전주상의회장, 한상률 국세청장, 이승기 광주상의회장, 김기주 광주지방국세청장.

# 고유가에 날개 단 가솔린 SUV

### 기아차 광주공장 스포티지 판매율 2.4%서 28%로 급등

경유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솔린 SUV 판매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유가격 급등과 맞물려 디젤차의 대명사로 불리던 SUV의 가솔린차량 판매비율이 일부 모델의 경우 디젤차량에 근접할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까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등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비는 좋지만 가격이 비싼 디젤 모델 대신 가솔린 모델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생산하고 있는 스포티지의 경우 디젤모델 판매

실적은 올해 3월 2천928대에서 4월 1천991대, 5월 1천54대로 급감하고 가솔린 모델은 같은 기간에 77대(3월), 212대(4월), 414대(5월)로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만 해도 2.4%에 그쳤던 스포티지의 가솔린 모델 판매비율은 4월에 9.6%, 5월은 28.2%까지 올라갔다.

현대차 투싼 가솔린 모델의 경우 지난 4월 75대였던 판매실적이 5월에 181대로 배가 넘게 늘었고 전체 판매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9%에서 8.4%로 높아졌다.

이어 6월 들어서는 18일까지 판매 계약 실적이 555대를 기록하면서 디

젤(768대)과의 차이를 크게 좁혔다. 하루에 100대의 투싼이 판매 계약과 올린다고 치면 이달 들어 가솔린 모델이 이 중 42대나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투싼은 특히 지난 17일 하루 동안 가솔린 모델 84대가 계약되면서 66.7%의 판매계약 비율을 기록해 디젤을 앞섰기도 했다.

대형 SUV 베라쿠르즈도 가솔린 판매 비율이 3월부터 5월까지 1.9%(23대), 3.2%(34대), 5.6%(48대) 등으로 높아지다가 이달 18일까지 계약현황을 보면 12.3%(72대)까지 올라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신용카드 전표 보관 안해도 된다

### 국세청은 23일 납세협력비용 절감 차원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전표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주로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영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상반기는 6월30일, 하반기는 12월31일까지이며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 데이터 베이스를 조회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신고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 1천억원 이상 시공능력업체 지방공사 발주도 입찰 제한

## 7월부터 '도급하한제' 확대

7월부터는 시공능력평가액 1천억원 이상의 종합건설업체는 지방공사·공단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의 적용을 7월1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는 공공공사의 금액이 시공능력 평가액의 1% 미만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입찰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국내 172개 건설사는 향후 10억원 미만의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상은 현행 국가나 지자체·14개 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서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102개)·지방공사(112개) 등이 발주하는 공사로 대폭 확대된다.

단,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발주 74억원,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발주 150억원 이상 공사는 '도급하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 제도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건설업체 발주물량이 연간 2천749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이반에 개정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1일부터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20t 미만 소형 선박 내달부터 담보 대출

국토해양부는 내달부터 20t 미만 소형 선박을 담보로 금융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형선박저당담보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 선박은 총톤수 20t 미만의 일반 선박과 어선을 비롯한 범선(총톤수 5~20t), 부선(총톤수 20~100t), 20마력 이상 선외기가 설치된 모터보트 등이다.

소형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저당권설정 계약서 등 서류와 인감증명을 선박 등록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시연 23일 서울 을지로 웅진코웨이 본사에서 열린 분쇄건조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인 웅진 '클리베' 체험 행사에서 모델들이 클리베 사용법을 시연하고 있다. '클리베'는 분쇄건조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로 가격은 55만원이라고 웅진 측은 밝혔다.

#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서 금호고속 국내업체 첫 획득

금호고속이 국내 운송업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ary) 검증 증명서를 받았다.

금호고속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 세계적 검증기관인 DNV로부터 3차 검증을 마치고, 23일 주한 노르웨이 대사로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증명서'를 받았다.

금호고속은 이번 검증을 통해 수송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온실가스 산정기준을 정립, 주행 및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관리능력을 크게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지역 업체 종합금융서비스 확대”

김 대 현 산업은행 광주본부장

“지역 연고 업체에 대한 종합 금융지원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광주·전남의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신임 김대현(51) 산업은행 광주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자금공급에도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며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품소재기업투자제도’ 등 우량 상품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광주·전남은 광산업과 조선업 등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환리스크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강진 출신으로, 광주고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3년간 산업은행의 자금공급 및 환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동양인의 향토미

# Aminan

### 무안 ++ 하이난(삼아)직항

제주, 보타기 편성 ₩ 899,000 ~

12월, 1/30, 8/30, 8/24, 8/21, 8/18, 8/15

항공사	비행기종류	비행시간	편수	비행일	비행시간	비행기종류	비행시간	편수	비행일	비행시간
대한항공	A350-900	1시간 15분	1	12월 15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	12월 18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시간 15분	1	12월 21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	12월 24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시간 15분	1	12월 27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	12월 30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시간 15분	1	1월 3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	1월 6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시간 15분	1	1월 10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	1월 13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시간 15분	1	1월 17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	1월 20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시간 15분	1	1월 24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	1월 27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시간 15분	1	1월 31일	1시간 15분	대한항공	A350-900	1	2월 3일	1시간 15분

▶ 인천공항, 광주기내선 · 특급여행사 문의, 광주MBC 문화방송 사설실

▶ 문의전화) 010-225-8070